

종자생명산업 인재양성 메카 자리매김

전북대 원예학과, '미래 육종가' 22명 인력 배출... 인공교배·조직배양 등 실무교육

전북대학교 원예학과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종자생명산업을 선도할 우수 인재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대 원예학과에서는 최근까지 2019년 종자생명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의 일환으로 미래육종가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종자생명산업을 선도할 22명의 인력을 배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교육과정은 종자생명산업과 민간육종연구단지(Seed Valley)에 적합한 종자기업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지난 7월15일부터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주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관으로 전북대 원예학과 이준대 교수의 책임 아래 진행됐다.

교육생으로는 전북대 농업과학생명대학 소속 3, 4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외부인 등 총 22명이 참여했

며, 전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했다.

이들은 농업 육종 분야의 현장 투입을 위한 실무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인공교배, 조직배양, 분자표지 분석, 기능성 성분 분석 등의 실습을 통해 육종기술 능력을 배양했다.

또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위치한 국내 종자회사인 (주)고추와육종, (주)파트너즈, (주)아시아종묘와 전북농업기술원 파프리카시험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방사선육종연구센터를 방문해 육종현장을 직접 보고 배우며 육종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진건용 학생(원예학과 3학년)은 "실습과 국내 종자 기업 견학을 통해 종자산업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종자산업계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며 종자생명산업계 진출에



전북대 원예학과에서는 최근까지 2019년 종자생명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의 일환으로 미래육종가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종자생명산업을 선도할 22명의 인력을 배출했다.

대한 더 큰 꿈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과정 총괄책임자인 이준대 교수(농생대 원예학과)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를 비롯한 국내 종자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많이 배출될 것이라고 기대된다"며 "내년에도 2차 종자생명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학생 해외 취업지원 본격화

김동원 총장, 멕시코 방문 업무협약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멕시코 소재 대학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멕시코시티 K-MOVE 센터 등과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산업체 등을 방문하는 등 학생들의 해외취업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동원 총장은 지난 7월 25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 있는 KOTRA K-MOVE 센터를 방문, 김기중 센터장과 '중남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 인재들의 해외 취업을 위해 일 자리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전북대는 청년들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키로 했으며, K-MOVE 센터는 중남미 일자리 통합망 구축과 현지 구인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 총장은 멕시코 대사관을 방문해 김상일 대사를 면담하고, 전북대 학생들의 멕시코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요청했다.

학생 교류를 위한 멕시코 대학들과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다.

김 총장은 7월 29일 자동차 부품 기업 등 한국 기업 100여개가 몰려 있는 과나후아토주 소재 과나후아토대학을 방문, 세르시오 안토니오 부총장과 엘리아스 레데스마 국제담당처장을 만나 학생 교류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과나후아토대학은 멕시코시티에서 자동차로 5시간 거리에



지난 2일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지난 7월 25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 있는 KOTRA K-MOVE 센터를 방문, '중남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있는 대학으로 4개의 캠퍼스에 4만5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7월 30일에는 케레타로 지역에 있는 멕시코국립자치대학 휴리킬라(UNAM Juriquilla) 캠퍼스를 방문한 가운데 양 대학의 학생 및 교수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31일에는 유카탄자치대학교 관계자를 만나 양교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11월에는 이 대학 총장 등이 전북대를 방문해 학생교류 방안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2019년도 제2회 검정고시 시행 7일 4개 시험장서 1130명 응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7일 실시되는 '2019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은 초졸 98명, 중졸 196명, 고졸 836명 등 총 1,130명이 지원했으며, 전주중학교, 전주서곡중학교, 전주교도소, 송천중고등학교 등 4개의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별 수험번호에 따른 시험장소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응시자는 초졸 검정고시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수험표, 검정색 불펜을 지참하고, 중졸·고졸 검정고시의 경우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도시락 등을 준비하면 된다.

시험 당일에는 응시자가 많은 관계로 시험장과 주변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해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며, 합격자 발표는 8월 27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교원인사과(☎063)239-3322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칠월칠석 완판본 만나는 날

10일 완판본문화관서 전주한옥마을 절기축제 행사

오는 10일 2019 전주한옥마을 절기축제의 마지막 행사가 칠석(七夕) 절기에 맞춰 완판본문화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2019 전주한옥마을 절기축제는 전주한옥마을문화시설협의회를 중심으로 전주시와 전주한옥마을비밀공동체가 후원하며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축제다.

칠석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일 년에 한 번 만나는 설화가 있는 날로, 민간에서는 서책을 햇빛과 바람에 쬐어 말리던 풍습을 하는 풍속이 있던 날이다. 칠석 절기에 맞춰 '그리움', '사랑', '편지'를 주제로 전주의 기록문화유산 완판본을 만날 수 있는 전시, 체험,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전시 '완판본 한글편지, 언간독(諺簡讀)'은 문명서관(文明書館)에서 간행한 언간독(諺簡讀) 중 10편의 편지글을 선보인다. 언간독은 조선 후기 서민들의 한글 편지쓰기 교과서로 아름다운 문장으로 산문 문학의 바탕이 되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을에 놀자고 청하는 편지, 꽃놀이 청하는 편지 등 글을 통해 전하는 그리움의 정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기획 전시와 연계해 선비들의 편지 시집지(詩集紙) 목판인쇄, 목판화 염서 체험도 준비돼 있다.

특히 이번 절기축제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여해 만들어낸 참여전시 '완판본 판각 삼매경'이다. 참여자는 전주한옥마을에 거주하거나, 공방, 식당, 한옥숙박 등을 운영 하는 주민이다. 전주한옥마을의 역사와 함께한 지역민이 참여해 새긴 판각 작품들은 절기축제 당일 전시된 후 전주한옥마을 곳곳에 걸릴 예정이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특별공연은 합굿마을과 연계한 전주한옥마을 마당놀이 '용을 쫓는 사냥꾼'이다. 공연 중에는 기쁨놀이, 민두레 소리, 장원례, 달구방아 등 전북 고유의 절기민속놀이를 볼 수 있으며, 절기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전주소리문화관(관소리 춘향가 사리가 대목 체험, 관소리 속 동물 캐릭터 그리기), 최명희문학관(완판본, 소설 혼불을 만나다)의 문화시설 연계체험과 전주한옥문화관의 SNS 이벤트 등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공공부분 에너지목표 관리제 이행 실태 점검

전북도교육청이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공공부분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목표관리 이행을 위해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점검 내용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에너지 지

킴이 지정·운영 여부 △실내 적정온도 유지 여부 △그늘효율에너지기구 입 및 사용 적정성 △대기질전력 차단 장치 설치 등 대기질전력저감 노력 등이다.

또 경차·하이브리드차량 전용주차장 확보(10% 이상), 승용차 요일제 운영, 에너지절약 교육 실적, 불필요한 조명기기 소등, 냉방기 점검 및 청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 점검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스마트 디바이스 창업캠프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지난 7월30일부터 8월1일까지 3일간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J-cube 오픈형 창업교육 스마트 디바이스 창업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도내 고등학생·대학생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맞춰 ICT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에서 학생들은 3D 프린팅, 언플러그드 코딩, 아두이노와 센서 및 아두이노 코딩 등에 대해서 배웠고, 또 응용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참여했다. 이날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의 우수성과 사업성 등을 심사한 결과 아이만 팀(강병천, 안산고등학교 3학년)이 최우수상, Ringuard 팀(김성호,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이 우수상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제23회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